

중국식 산업구조조정의 사회문화적 영향: 경쟁에서 배제되는 청도 한국제조업의 변화와 대응*

장세길**

1. 연구목적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상상된’ 경계를 가로지르며 세계 곳곳을 누빈다. FDI는 인기 지역에 투자가 몰리는 “밴드웨곤(bandwagon) 효과”(Sethi · Guisinger · Phelan · Berg 2003: 316)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곳을 피해 “효율성, 자원, 시장을 좇아”(Johanson · Vahlne 1977) 유럽에서 아시아로, 혹은 또 다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이동을 거듭한다. 이렇듯 경계를 넘는 FDI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보면 대부분 ‘어디에’, ‘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투자결정에 대한 관심(Johanson 외 1977; Dunning 1980; Sethi 외 2003)부터, 해외자본이 진출함으로써 투자대상국(host countr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Weisskopf 1972; Chen · Chang · Zhang 1995; Dhar ·

* 이 논문은 제2단계 두뇌한국(BK)21(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eX-RTC 사업단)의 해외장기연수지원(2008. 2)에 의해 수행된 연구 중 일부임. 진심어린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Roy 1996; Shen · Wong · Chu · Feng 2000; Saha 2000; Pereira 2004; Lei 2007; Wang · Lee 2007)에 시선이 모아져 있다.

이런 논의에 따르면 해외자본은 민족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존재로서만 비쳐진다. 이에 반해 민족국가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서 FDI를 연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지역성이 강조되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역적 다양성 (regional variations)”(Sethi 외 2003: 316)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외자본에게 ‘상상된’ 공동체와 그 경계는 말 그대로 ‘상상’에 불과하고, 민족국가는 해외자본을 통제하는 힘이 극히 미약한 것처럼 묘사될 때가 많다.

이 연구는 이처럼 자본의 국제이동 앞에 민족국가를 ‘나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기존 연구경향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필자는 노동집약형 전통제조업 분야 해외기업이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으로 경쟁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상을 통해 민족국가가 해외자본을 어떻게 ‘통치하며’, 해외자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해외자본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국가를 보면 글로벌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본과 이주민을 받아들일 목적으로 유연한 자본축적의 전략으로서 시민권이라는 통제기제를 파괴하기도 한다(Ong 1998: 349). 여느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을 선언한 중국도 해외자본을 통제하는 여러 기제를 제거하면서 전 세계의 FDI를 끌어들이었다. 이를 통해 괄목할만한 고속성장을 기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Kamath 1990). 하지만 해외자본이 풍부해지자 그동안 추진해온 유연한 자본축적을 위한 전략에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특히 ‘시장과 기술의 교환(市場換技術)’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¹⁾ 중국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2006. 3.

1) 예를 들어, 중국 상무부 대외경제연구원의 ‘2005 재중 다국적기업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자본유치에 대해 ‘핵심기술결핍중’으로 평가한다. 탈세와 국부유출, 산업·지역 불균형,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

15)에서 ‘제11차 5개년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2006~2010)’(이하 11·5계획)을 채택한다. 11·5계획에는 FDI를 골라 받을 뿐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집약형 전통제조업을 ‘퇴출(divestment)’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해외자본유치정책이 포함돼 있다.²⁾ 해외자본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11·5계획이 담고 있는 ‘퇴출’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자발적으로 자금을 ‘회수(withdrawal)’하는 행위와 다르다. 그렇다고 저개발국가의 방송이나 석유산업처럼, 국가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퇴출(forced divestment)” (Kobrin 1980)되는 것도 아니다. 광둥(廣東)과 상해(上海)지역에 진출한 대만·홍콩·일본의 전통제조업, 그리고 산둥(山東)지역의 한국제조업³⁾은 해당지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Shen 외 2000), 여전히 중국 내 FDI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중국은 아직도 효율성과 자원, 시장의 측면에서 최고의 투자처인 셈이다. 하지만 ‘양에서 질로’ 중국의 해외자본에 대한 정책이 바뀔에 따라 이들 전통제조업은 점차 정치경제적인 관심에서 소외받고 있고, ‘석양기업(夕陽企業)’으로 불리면서⁴⁾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거나 중국 사회에 동화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 2008년 초에 이슈가 되었던 무단철탈수(일명 야반도주)⁵⁾는 전통제조업 분야 FDI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 더구나 무단철탈수한 기업 중에는 세계 2위의 마

자본유치의 필요성 감소, 해외자본유치를 통한 기술도입 및 고용창출 효과의 미흡에 따른 경제자립도 제고 필요성을 제기한다(박장재 2008: 326).

- 2) 中國人大網 2006. 3. 15. “人民日報社論: 譜寫科學發展的新篇章” 참조.
- 3)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제조업’은 ‘노동집약형 전통제조업 분야의 한국기업’을 뜻한다. 이후로는 ‘한국제조업’으로 부른다.
- 4) 靑島日報(2008. 1. 24) “中國新法實施勞動力成本上升部分企離開” 참조.
- 5) 언론이 ‘야반도주(夜半逃走)’로 표현하면서 이 말이 일반화됐지만, 야반도주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정식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철탈수한다’는 의미의 ‘무단철탈수’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 6) 청도대외무역협작국의 ‘청도지역 투자기업 무단철탈수 현황’에 따르면 인건비·임대료·대출금·하청대금 등을 남겨두고 무단철탈수한 한국제조업은 2003년 21개, 2004년 25개, 2005년 30개, 2006년 43개, 2007년 87개에 달한다. 하지만 현지기업인들

우스·키보드 제작사(대만기업)를 비롯해 전자제품 회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해외자본을 통제하는 일은 전통제조업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중국의 산업정책변화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가장 많은 FDI가 진출해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해외자본에 대한 전략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산업정책변화를 분석·전망하고(홍정륜·구기보 2006; 강준영·전병근 2008), 해외자본유치 전략의 변화에 따른 투자전략과 대응방안 찾기(서창배 2006; 황재한 2006; 남수중 2007; 오경숙 2007; 이수행 2007; 박장재 2008) 등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를 보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향후 전개될 FDI의 중국진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산업구조조정을 자본의 정치로 이해하면서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전통제조업의 퇴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경향은 해외학자의 연구(Jin 2008)에서도 발견된다.

월러스타인(Wallerstein 1979)의 세계체제론은 생산의 지구화로 해외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분석틀일 것이다. 하지만 내쉬(Nash 1981: 241)에 따르면 세계체제론은 주변부를 ‘수동적인 희생자’로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과장함으로써 내부의 다양한 역동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앞에서 살펴본 중국 산업정책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도 해외기업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상정하면서 산업구조조정에 나타나는 지역사회와 해외기업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도(靑島)의 한국제조업이 산업구조조정으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현상뿐 아니라, 이러한 통치강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참여관찰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이 해외기업에 미치는 사회문

은 실제로 무단철수한 기업은 이보다 더 많으며, “지금도 매일 도망가. 전화 통화 안 되면 그건 (한국으로) 튀어야”라며 현재도 무단철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화적 영향과 그 역동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중국인의 세계관으로서 중화사상에 주목하면서 ‘중국식’ 산업구조조정을 분석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한국제조업만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형성한 한국인·조선족의 종족경제권(ethnic economy)까지 포함해서 중국식 산업구조조정 of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FDI는 자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람을 이주시키며 산업공동체를 형성시킨다. 산업구조조정은 해당 기업과 관련한 가족·협력업체·주변상가 등 산업공동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Nash 1989: 330~338)는 점에서, 이러한 종족경제권도 산업구조조정의 영향에서 빗겨갈 수 없다. 더구나 이동이 보다 유연한 기업과 달리 이들은 새로운 땅에 닦아 놓은 삶의 터전을 쉽게 옮길 수가 없다. 그렇다고 타자로서 중국사회에 융합되는 것이 수월한 것도 아니다. 결국 공동체를 유지하던 근간인 한국제조업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한국과 중국의 ‘접경지대’(Rosaldo 2000: 336)에 남겨진 사람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한국기업을 매개로 형성한 종족경제권이 한국제조업이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자본의 국제이동이 광범위해질수록 이를 따르는 이주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외자본을 매개로 한 종족경제권 또는 이주민 사회는 자본의 국제이동과 관련해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연구주제이자, FDI 관련 정책생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존재이다.

2. 연구대상과 방법

중국은 해외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1984년에 14개의 연해 개방도시를 선정하고, 5개 도시는 성급 대우를 받는 국가계획의 단열(單列)시를 지정한다. 청도는 이와 같은 2개의 특별구역에 모두 포함된 도시다. 그

만큼 청도는 중국의 해외자본유치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재정체계가 지방정부들이 ‘술을 나누어 각자 먹는 방식(分灶吃饭)’으로 바뀌면서(김영진 1995: 615) 해외자본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됐고, 청도도 사활을 건 유치경쟁에 뛰어들다. 중국 최초(1988.04)로 비밀리에 기업유치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의 노력 끝에 1989년에 ‘토포톤(Top-Tone)전기유한공사’가 첫 독자외상기업으로 진출했으며⁷⁾, 이후로 청도는 한국의 “노동·자본·상품·문화의 게이트웨이”(Lin 1997: 218)가 된다.

한중수교(1992) 이후에 한국기업의 청도진출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하게 성장했으며, 한국주재원의 가족이 이맘때쯤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도 마련된다. 한국기업을 따라 이주해온 조선족도 종족집단지주지역(ethnic enclave)을 형성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청도 진출은 러시(rush)를 이룬다. 대기업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생활이주도 본격화한다. 청도대외경제무역국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청도 진출 한국기업은 9,932개이며, 실제 투자 누계금액은 117억 달러로 FDI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2007년 한국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17억 달러를 넘었고, 취업자 수도 45만 명에 육박한다. 이처럼 한국기업은 청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6개의 한국기업이 무단철수한 현장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산업구조조정이 한국제조업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보는데 가장 좋은 현장 중의 하나가 청도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제조업은 노동집약형 전통제조업 분야의 한국 FDI로서, 의류·섬유·가방·모자·완구·신발·악세서리·주얼리 분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전통제조업은 선진

7) 青岛日报 2004. 7. 6. “青韩破冰之旅: 中韩建交前青岛与韩国经贸交往的故事” 참조.

공업국에서 우선적으로 구조조정되는 산업이자,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에서 문호를 개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진출해 경제제도와 제반시설 등 인프라를 닦아놓으면 대기업이 뒤를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Johanson 외 1977). 청도의 한국 FDI 진출도 이와 같은 경로를 보이는데, 필자는 투자역사가 20년이 넘었고 현재 산업구조조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전통제조업 분야 한국 FDI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필자가 청도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는 한국섬유업체 관리자 30명이 5,400만 위안의 빚을 남겨두고 한밤중에 한국행 비행기를 탄 사건으로 한국제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한 때였다. 필자는 먼저 KOTRA·지자체대표처·청도한인상공회·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한인신문과 중국신문을 통해 무단철수 현황과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했다. 이어서 청도에 진출한 지 20년이 된 2명의 한국기업인과 이들이 보관하던 신문·자료, 그리고 중국신문·조선족신문을 통해 한국제조업의 청도 진출과 한인·조선족사회의 형성과정을 정리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줄 면접대상자를 찾기 위해 필자는 청도 한국기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인(知人)을 수소문했고, 그렇게 해서 3명의 한국기업인(의류·주얼리·약세사리)을 찾아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다른 면접대상자는 이들에게서 시작해 눈덩이 굴리기(snow ball)식으로 20여 명의 한국기업인·조선족기업인·한국인주재원·조선족직원·한족공무원·한족직원 등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별(黃島·城陽·李滄·膠州), 업종별(의류·주얼리·약세사리·완구·가방)로 골고루 선정되도록 신경을 썼다. 또한 한국인·조선족의 집단거주지역(市南·城陽·李村·卽墨)의 식당·부동산·학원관계자를 만나 종족경제권의 영향과 변화를 함께 살펴봤다. 현지조사는 2008년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실시했다.

3. 중국의 해외자본에 대한 전략변화

중화사상은 민족과 영토의 범위를 의미하는 ‘중국(中國)’, 세계질서와 통치체계를 뜻하는 ‘천하(天下)’,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화이(華夷)’관으로 구성되어 있는(이성규 1992: 33), 중국인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중국 학계는 보편성으로서 ‘포용(包容)’과 특수성으로서 ‘배타(排他)’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던 중화사상을 사회주의적 요소를 결부해 신중화사상(新中華思想)으로 탈바꿈시켰다(이철승 2006: 514~519). 중국 정부는 이러한 신중화사상의 ‘화(和)’사상에 근거해 지역간·계층간 조화를 위한 ‘화해사회(和諧社會)’론을 제기하는(李哲承 2006) 한편, 포용과 배타라는 이중적 구조를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이국(異國)적인 것에 대응하는 화이관에 입각해 해외자본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11·5계획을 기점으로⁸⁾ 중국 산업의 도움여부에 따라 해외자본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FDI를 골라 받겠다는 선택적 투자유치는 달라진 해외자본유치 전략의 핵심이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라고 부른다. 2007년에 개정한 4차 수정안⁹⁾의 내용을 보면 기존과 달리 장려업종이 대폭 확대됐는데, 대부분 순환경제·재생가능에너지·생태환경보호 등의 분야와 고기술집적 산업에 집중됐다. 제조업 분야만 놓고 보면, 하이테크·장비제조업·신소재제조업·선진의료설비 등을 투자장려업종에 포함시켜, 산업고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청도

8) 11·5계획 중 해외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첫째, ‘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방식 전환’이다. 오염기업 도태·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사업 육성·경방공업 수준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개혁 심화 및 성장방식 전환’이다. 해외자본이용의 목표를 ‘양에서 질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국제 분업상의 지위 상승, 대외무역구조와 산업의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황재한 2006: 9).

9)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1995년 6월에 처음 공포됐으며, 외국인 투자업종을 장려·제한·금지로 나눈다. 4차 수정안은 11·5계획으로 채택한 ‘외국인 투자구조 조정, 산업고도화, 지역 균형발전’에 근거해 제정됐다.

시 정부도 ‘맹목적인 투자유치’로부터 ‘선택적인 투자유치’로의 변화를 꾀했다. 청도대외경제협력국의 내부분서(2007.10.16)에 따르면, 투자를 유치할 선진제조업으로 선박·해양공정·자동차·기관차·석유화학·가전전자·선진장비·전자정보·생물의약·신소재·신에너지 분야를 꼽았다. 또한 총투자가 3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중대(重大)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책임분담제’를 실시해 시급(市級) 지도자가 직접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녹색 통로제’를 실시했다. 건설용지도 선진제조업과 중대프로젝트에 우선 배정했다. 여기에 청도시 정부는 2007년부터 중대프로젝트를 유치한 단위와 직원에게 연간 외자유치액 1%를 표창으로 지급(2007년 2,000만 위안)하고 공적(功績)에도 중요하게 반영했다. 공적은 관시(guanxi, 關係)와 함께 공무원의 승진에서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선진제조업과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에 반해 중국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산업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보면, 중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성숙한 기술이나 높은 생산력을 구비한 전통제조업은 장려목록에서 제한업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반베어링 제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와 단섬유 설비제조, 방직업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심지어 고에너지와 고자원 소모, 고오염 발생 FDI는 아예 제한·금지했다. 청도시 정부도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한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며 신형의 공업화 행정을 촉진시킨다”는 방침 아래, 산업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도심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배제정책을 추진했다.

전통제조업에 대한 배제정책은 곧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로 이어졌다. 기업소득세법을 개정(2008. 1)하면서 내·외상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해오던 소득세율을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중국기업(24.53%)과 외상기업(14.89%)간 평균 실효세율이 대략 10% 가까운 차이를 보였지만, 법을 개정해 동일하게 25%로 적용시킨 것이다. 지역별 우대정

책도 산업별 우대 정책으로 바뀌면서 동부 연안의 경제특구에 대한 세 금감면 혜택도 줄어들었다. 청도의 경제기술개발구·보세구·수출기공 구 투자기업의 경우 최소 10%에서 1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 다. 그나마 기업소득세법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수출세금 환급비율 조정은 직격탄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 기 위해 수출세금 17%를 기업에게 돌려주던 정책에서 2006년 9월부터 는 환급비율을 하향조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물론 베이징올림픽 이 후에 세계경제불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세금 환급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통지(通知)를 발표하기도 했다.¹⁰⁾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러 한 정책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국제조업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 으로 해외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으로도 전통제조업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청도시· 구 정부가 공장지대를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일부 촌 정부 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전통제조업을 도심 외곽으로 퇴출시키면서, 전 통제조업에게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 는 굴레를 씌우는 일이 많아졌다. 언론에서는 전통제조업을 가리켜 ‘석 양기업’이자 ‘불량(不良)기업’이라며, “이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고 표현했다.¹¹⁾ 심지어 중국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비정상적(abnormal)인 업종으로서 중국 사회가 이들을 배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normal)인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¹²⁾ 전통제조 업이 화해사회 건설을 위해 응당 배제되어야 하는 ‘공공의 적’으로 비쳐 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법률 개·제정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의 정당성을

10) 중국 국가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8년 8월 1일 방직·의류 수출세금 환급비율 을 11%에서 13%로 상향조정한다는 통지를 발표했고, 2008년 10월 21일에는 다시 14%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11) 青島日報(2008. 1. 24) “中国新法实施劳动力成本上升部分企离开” 참조.

12) 中国经营报(2008. 4. 20) “韩资撤离地方政府招商引资弊端显现” 참조.

확보해갔다. WTO에 가입한 뒤부터 중국 정부는 5년 동안 법률·규정 등을 연평균 22,000여 차례나 제·개정했으며, 11·5계획이 시작된 2006년부터는 세무·환경·노무·회계 관련 법률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강화했다(KOTRA 2007: 8). 해외기업과 관련해 기업소득세법(2008년), 물권법(2007년), 파산법(2007년), 동업기업법(2007년), 반독점법(2008년), 노동계약법(2007년), 순환경제법(2008년) 등의 법률을 변경했다. 제도에 따라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노동·세무·환경 관계자의 현장조사가 빈번해졌고,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벌금을 부과했다. 신노동법과 노동중재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중재신청도 2배로 늘어났다. 해외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도 집중적으로 관리됐다. 중국 정부는 수입대금을 부풀리고 수출금액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장부조작, 제품을 홍콩으로 잠시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와 수출세금 환급을 받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했다.¹³⁾

재미있는 현상은 법률·규정을 제정해 기업을 제도로 묶어두면서 한편으로는 관시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식 산업구조조정 의 또 다른 특징인 것 같다. 양(Yang 1994)에 따르면, 중국은 마오(毛)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법적 보호가 필요했고 몰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중국 사람들은 사회적 삶의 필수조건으로 관시를 형성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정치적 두려움이 약해지면서 관시의 실용적 측면이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관시는 덩샤오핑(邓小平)시대에도 의무와 채무라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비즈니스를 이끌어내며 중국사회의 구조로서 재생산됐다. 전통제업이 형성한 관시네트워크(guanxi networks, 關係网)도 제도가 강화되면서 약해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순환되는 선물경제의 형태로

13) 예를 들어, 朝鮮日报, “靑島韓國企業面臨危機<下>韓國企業形象最不好” 참조. “청도시 관계자는 ‘2004년 외상기업의 세금징수액 49억 위안 중 한국기업이 낸 세금은 8억 위안에 불과했다’며, ‘술집과 골프장에 한국인이 제일 많은데, 세금은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밖에 안 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국이 일부 지역에서 칼을 대기 시작했다. 문등시의 한국업체 200개 중 80개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유지됐다. 예를 들어, 신노동법이 시행됐지만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보
협료를 100% 납부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았다. 노동당국도 서류상으
로만 납부하는 것으로 작성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
움을 고려하며 암묵적으로 묵인했다. 환경·세무당국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업은 이전과 달리 강화된 제도만큼이나 더 많은 ‘선물’을 준비
해야 했다.

4. 한국제조업의 달라진 위상

1) 한국제조업의 확대와 ‘개인지위’ 하락

개인지위(個人地位)는 중국의 사회관계 형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쉐웨이(翟學偉 2004: 294)에 따르면, 중국사회에서 개인을 판단
하는 기준은 ‘몸값(身價)’과 ‘신분(身分)’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중국
사회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아주의적 문화구조(費孝通 1984: 35)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상대방의 지위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는 사회적 신
분보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더 결정적이다. 따라서 개인지
위는 자기생활이나 가치판단에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는
가, 혹은 앞으로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즉
몸값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국제조업이 청도에 진출하던 초기에는 자본과 선진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몸값이 높았다. 청도시·구 정부는 총투자금액으로만 평가했던
당시의 해외자본 유치라는 정치적 공적(功績)이 중요했고, 공무원은 다
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 한국제조업의 몸값을 높이 쳤다. 그래서
한국제조업이 원하는 일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사업운영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시장, 부시장들이 우리(한국기
업) 일로 몸소 뛰어다녔으며, 기계설비도 들여와 보름 만에 시운전할

수 있을 정도”¹⁴⁾로 정부의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촌 정부는 직접적으로 건물·토지임대료를 챙겼고, 한국기업인과 관시를 형성해 또 다른 한국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기업인의 개인지위를 높게 평가했다. 예를 들어, 1997년까지 청도에 진출한 한국제조업 800여 개 중에서 200여 개가 (주)다산(청도에 세 번째로 진출한 한국제조업)을 찾아와 자문을 구했고, 이중에서 100여 개가 청도에 자리를 잡았다.¹⁵⁾ 청도에 진출하려는 한국제조업이 경영조건, 기반시설, 사회체제 등에 불안을 느끼자 촌 정부가 먼저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인을 통해 투자를 성사시킨 것이다. 한편, 공인(工人)에게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인에게도 선진 산업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인과 한국 제조업의 가치적 지위는 상당했다.

하지만 한국제조업이 어려워지자 몸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반주변부·주변부는 세 개의 분리된 법칙을 가진 세 개의 분리된 ‘경제’가 아니라, 하나의 체제에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이한 ‘부분(sectors)’이다(Wallerstein 1979: 87). 그런 점에서 세계경제 불황은 세계체제의 한 부분인 중국의 제조업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청도의 한국제조업은 미국·일본·유럽, 그리고 한국과 연계된 ‘3각 구조’로 운영됐다. 한국의 기업(또는 무역회사)이 미국·일본·유럽으로부터 핵심기술과 디자인 등을 받아 부품·반제품의 중간재(의류원단·공예부품·기계설비 등)를 생산했다. 중국의 한국제조업은 이러한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예, 의류업종은 원단·디자인을 한국에서 들여왔다)해 가공한 뒤 대부분을 미국·일본·유럽에, 일부를 한국에 수출했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위축된 미국·일본·유럽의 소비가 중국의 한국제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¹⁶⁾ 이러한 구조에서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늘어난 제조원가조차

14) 흑룡강신문, 1992. 9. 17. “청도에 뿌리내린 한국의 기업군체” 참조.

15) 世界信息報, 1997. 참조.

16) 예를 들면, 청도에 진출한 지 8년 된 보석업체 ‘B주얼리’는 지금까지 미국 바이어 2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¹⁷⁾ 여기에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절상을 용인하면서 나타난 위안화 절상은 한국제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¹⁸⁾

수출세금 환급비율 조정은 수출 위주의 한국제조업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안겨줬다. 이전에는 편법을 써서라도 수출세금을 환급 받아냈지만, 청도시 정부가 “양호한 법치환경을 건설하고, 해외기업의 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수금을 규범화한다”는 계획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¹⁹⁾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사회주의적 신노동법을 시행하면서 임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승했다.²⁰⁾ 이직률도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FDI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간 치열한 경쟁으로 해외기업이 점차 내륙으로 확산되면서(Shen 외 2000) 농민공이 연안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인력시장이 3차 서비스산업에 집중하면서²¹⁾ 비싼 돈

명과 거래를 해왔다. 미국 내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여 주문량은 연일 늘어났고 그 결과 공인이 8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금은 주문량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 다행히 한국 홈쇼핑에 판로가 열려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공인수를 500여 명으로 줄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7) 예를 들면, 가죽업계 원자재 가격은 2007년에 평균 30%가 인상됐고 2008년 1분기에 다시 7% 가까이 올랐다. 철물, 식품가공업계 원가도 각각 8%, 5% 올랐다. 이로 인해 산동성 섬유업계의 경우 전체 이윤율이 2007년 10%에서 5% 이하로 내려갔으며, 금속가공업계 이윤율은 3%에 그쳤다(周刊經濟 2008. 8. 18 참조).
- 18) 예를 들어, 수출액이 1,200여 만 달러를 수출한 회사는 2007년 6.5% 절상에 따라 수입이 310만 위안이나 줄어들었다. 6% 절상은 기업이익 3%를 줄이는 것과 동일했다(新財副 2008. 5. 15 “外企 ‘搬家’遠喜近憂” 참조).
- 19) 青島市政府對外經濟協力局 내부자료(2007. 10. 16) 참조. 예를 들어, 한 의류회사의 경우 세무조사에서 장부조작이 문제돼 4년간 소급해서 200만 위안의 세금고지서를 발부받은 적이 있었다.
- 20) 청도의 노동자 월평균 급여는 2007년 1,600위안에서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1,800~2,000위안까지 올랐다.
- 21) 예를 들면, “2008년 상반기 청도의 1차 산업 구직자가 1,019명으로 전체 구직자 중 0.58%에 불과, 2차 제조업 구직자는 79,468명으로 전체 45.31%로 하락, 3차 산업 고용자수가 94,900명으로 54.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기존 2차 산업에 몰렸던 구직자들이 올해 들어 서비스업을 비롯한 3차 산업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청도시 노동 및 사회보장국은 지난 수년간 청도 도심(시남구, 시북구, 노산구, 사방구)에서 제조업체를 도시주변지역으로 이전시키는 한편, 신규 서비스산업을 대폭 발전시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인제 수요량이 제조업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財經日報 2008. 8. 1)

을 지불하더라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더욱이 한국인관리자는 기술자 출신이 많아, 갈수록 복잡해지는 중국의 법률·규정에 낯설 수밖에 없어 어려움은 배가됐다.²²⁾ 연일 치솟는 전기세도²³⁾ 환경 관련 비용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였다. 상품폐기, 포장회수 및 무해처리까지 생산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순환경제법’을 시행(2008년)하고, 환경세 도입마저 논의됐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한국제조업은 환경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뒷돈’이 필요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외곽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투기성 핫머니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유입을 통제하면서 수출 위주의 임가공 회사는 수출대금도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했다.²⁴⁾ 제때 인건비를 줄 리 만무했고, 부자재 비용도 결제가 늦어졌다. 외상거래가 힘들어진 상태에서 유동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자 문을 닫는 공장이 하나둘씩 생겨났고,²⁵⁾ 일부 기업은 복잡한 청산절차 때문에²⁶⁾ ‘무단철수’하면서 한국제조업이 가졌던 사회적 가치는 급속히 악화됐다.

중국사람 개개인이 한국제조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적 지위도 덩달아 하락하면서 한국제조업은 중국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중국 정

-
- 22) 예를 들면, H의류 사장은 재봉사 출신답게 본공장과 하청공장의 생산관리에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법률·규정·제도와 절차를 잘 몰라 20만 위안의 수출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기도 했다.
- 23) 예를 들어, 산둥성은 2008년 6월 10일부터 피크시간대 산업용 전력요금을 70% 인상했다. 또한 청도시는 전력이 부족해 2008년 6월 2일부터 지역별로 공장 휴업요일을 강제로 지정했다. 실제로 2008년 8월에 청도시 공장지대에서 1주일에 2~3일씩 전기가 끊기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
- 24) 대부분의 기업은 선수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제품을 납품하면 나머지 비용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제품을 수출한 뒤에 증빙서류를 갖춰야 수출대금을 인출할 수 있게 했다.
- 25) H의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문제로 한 달(2008. 9) 사이에 의류공장이 4개나 문을 닫았고, 본인들의 공장도 수출대금이 통장에 묶여 고생하다가 겨우 융통해 공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 26) “중국에서 기업이 철수하려면 너무 복잡한 청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세무부·해관·대외경제무역부·공상국·노동국·전력수력공급부문 등을 전부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기간도 180일 내지 27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財政經濟 참조)

부가 에너지 절감 미달 성(省)급 정부를 문책하고,²⁷⁾ 산동성도 오염물 배출량 목표치에 미달한 시·현급 정부 관계자를 중용(重用)하지 않으며 당대표·인민대표·정협위원으로 당선시키지 않을 계획을 밝히자,²⁸⁾ 전통제조업에 대한 공무원의 배타는 갈수록 심해졌다. 더구나 공적도 사라진 마당에 공무원이 이들 산업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또한 전통제조업을 대신해 고기술산업뿐 아니라 대기업이 청도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하면서²⁹⁾ 공무원은 대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일부 촌 정부는 해외기업으로부터 걷은 세금 덕에 상당한 유동자금을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고수입을 내는 아파트를 짓거나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했다. 당연히 한국제조업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공인과 기업인도 고임금과 새로운 선진기술을 찾아 한국대기업 또는 제3의 외국기업을 선호하거나,³⁰⁾ 아예 독자적으로 회사를 꾸리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제조업이 지역사회로부터 몸값을 높게 받을만한 여지가 총체적으로 사라져갔다.

2) 감시·통제의 대상으로서 한국제조업

화이관은 자아/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치열한 양이사상’, ‘관대한 이적의 수용성’, ‘강도 높은 권계주의(勸戒主義)’라는 특징을 갖는다(이춘식 2002: 146~149). 중국역사를 보면, 한족(중화민족)의 존립근

27) 周刊經濟 2008. 6. 16. 참조

28) 山東夕刊新聞 2008. 6. 16. 참조

29) KOTRA에 따르면, 2007년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52억 2,600만 달러로 2006년에 비해 56.2%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건수는 9,081건으로 7.1%가 줄었다. 투자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건설업 포함) 투자액이 2006년 5억 7,500만 달러에서 15억 2,700만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그동안 80~9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제조업 투자는 2006년 투자비중 81.5%에서 2007년에는 69.7%까지 떨어졌다.

30) 한국회사의 L한족직원은 중국대학생이 ‘미국·유럽기업-일본기업-한국기업-홍콩기업’ 순으로 선호한다고 일러줬다. 순차적으로 임금이 높고, 근무환경도 좋으며, 직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다.

거를 강화해주는 불가결한 존재로서 이민족을 상징하고 차별과 멸시, 증오심을 표출했지만, 한편으로 중국문화를 존중하고 예법에 따르기만 한다면 ‘중국·중국인’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발휘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아만인’으로 폄하하고 차별하는 강력한 권계주의를 실현한다. 개인지위가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감정·도덕 등 윤리에 대한 인정정도에 따라서도 중요하게 좌우된다(翟學偉 2004: 295)는 점에서, 일부기업의 ‘무단철수’는 개인지위의 하락만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권계주의에 따라 한국 제조업이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당하는 결과를 안겨줬다.

2008년 1월 13일, S섬유의 한국인관리자 30명이 한밤중에 한국행 비행기를 탄 사건은 무단철수가 소규모 영세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1995년에 진출한 S섬유는 공인이 3,000명이 넘고, 계열회사를 2개나 거느렸으며, 연간 수출입총액이 1억 5,000만 위안에 달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였다. 이들이 떠난 영향은 곧바로 지역사회에 미쳤다. S섬유에서 세관품질검사센터까지 물품 운송을 맡았던 한족 개인운수업자가 갑자기 11만 위안이라는 ‘거금’을 빚지게 된 것처럼,³¹⁾ 하청업체는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다. 또한 무단철수의 여파는 한국제조업 전체로 확대됐다.

청도 고가촌의 도금 관련 한국기업 30여 개는 촌정부로부터 전기세를 선불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한국 기업인 박모 씨가 촌정부에 항의했다가 관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촌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의 A 도금회사 총경리가 한 달 전에 직원 월급 5개월분과 재료비, 수개월 동안 미지급한 전기사용료를 내지 않고 한국으로 ‘야반도주’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촌 정부는 A 회사가 미지급한 노동자 월급과 전기세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³²⁾

31) 21世纪经济报道(2008. 1. 26) “韩资企业世刚高管集体逃跑真相” 참조.

32) 朝鲜日报. “青岛韩国企业面临危机<下>韩国企业形象最不好” 참조.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은행에서는 한국제조업에게 대출조차 꺼렸다.³³⁾ 임금 지급일이 하루라도 밀리면 공인들은 곧바로 일손을 뺐고,³⁴⁾ 일부 원·부자재 업체는 현금이 아니면 물건을 주지도 않았다. 심지어 한국인관리자가 한국으로 출장하려고 하면 운전기사는 즉시 차량대여 회사에 보고하는 현상도 생겼다. 차량회사 직원이 공장을 찾아와 밀린 차량임대료를 받아냈고,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출국을 가로막았다.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관계자는 “이번(2008년) 설날에 한국에 못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공인들이) 못나가게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라고 지역사회 분위기를 귀띔해줬다. 뿐만 아니라, 진출 초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돈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로, 또는 ‘인기 많은 해외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언제 망할지 몰라 불안한 회사’라는 생각도 많아졌다.³⁵⁾ 한국기업인을 향한 조롱도 부쩍 늘었다.³⁶⁾ 흑인 이주민이 언제나 범죄에 대한 의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집단과 범주로서 통제의 대상이 된 것처럼(Fanon 1995),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한국제조업은 집단과 범주로서 때로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때로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한편, 한국제조업의 홀대와 달라진 위상은 한국제조업을 매개로 형성된 종족경제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33) 대출을 받더라도 일명 꺾기 형식으로 대출금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납부해야만 가능했다.

34) 청양구의 한 약세사리 공장의 사례로, 근무시간임에도 공인 4-50명이 공장 앞에 어수선하게 모여 있었고, 한국인 사장은 부랴부랴 다른 기업인에게 돈을 빌려(그나마도 겨우 빌려) 임금을 지급한 뒤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35) 예를 들어, 고급빌딩인 ‘陽光百貨’ 건물주는 “믿을 수가 없어서 한국인에게 세를 주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또한 한국기업이 망해 4번이나 회사를 옮긴 한족 디자이너는 “일을 배우고 싶어 들어갔는데, 배울 것도 없고, 언제 망할지 몰라 불안하다”며, “이제는 안정적인 중국기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36)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조선족들 보세요. 밥 먹으면서 술 한 잔 하면서 ‘저 한국 새끼들’ 하는데 옆에서 한국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다 들어요. 전에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이씨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말 못하죠. 지금은 거기서 훌훌 피해서 달아나죠. 전에는 이렇게 안했죠. 요새 많이 역전됐죠.”(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조선족 관계자)

5. 한국인 · 조선족 종족경제권의 영향

1) 한국인·조선족·한족의 ‘삼각관계’와 정치적 자원으로서 종족성의 약화

“아시아계 이민자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소수자(bridge-building minority)’로서 문화와 경제를 연결”(Ong 1998: 351)하듯이, 조선족은 한국제조업과 청도를 연결해주는 ‘중계자(bridge builders)’였다.³⁷⁾ 조선족은 한국제조업의 회사등록 · 공장임대 · 직원채용 · 세금납부 등 기업운영부터, 비자문제 · 항공권구입 · 학교입학 · 장보기까지 개인비서 역할도 도맡았다. 이 때문에 조선족의 역할은 단순히 통역가가 아니었다. 한국인의 ‘참모’였으며, 한족공인에게는 ‘중간관리자’였다.³⁸⁾ 이런 과정을 거쳐 ‘최고관리(한국인) – 중간관리(조선족) – 공인(한족)’이라는 한국제조업 내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한족공인은 불만이 많았다.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월급도 더 받고, 한국인관리자와 한국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³⁹⁾ 자기에게 명령조로 지시하는 것이 못내 못마땅했다. 조선족과 한족이 끊임없이 마찰을 빚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⁴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국인관리자는

37) 김윤태(2003: 59)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이 대부분 중국기업과 합작경영 방식을 택했고, 독자경영과 합작경영 방식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제조업은 조선족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독자기업으로 진출했다고 분석했다. 김윤태의 설명처럼 한국제조업이 독자기업으로 진출하는데 조선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가 한국제조업 청도진출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도시 정부가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방침과 달리 독자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청도시 정부의 전략과 “중국인을 믿지 못하는 한국기업”의 입장이 맞아떨어져 독자기업 진출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38) “공인부장보다 직급은 낮지만 아무래도 (한국인관리자가) 많은 부분을 조선족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니까, (한국인관리자는) 개들(조선족직원)한테 의지하는 것이 많지. 그러다보면 단순히 통역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참모가 돼 버린다니까.”(‘B주얼리’ 관계자)

39) 한 한국인관리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국제조업은 조선족직원을 고용해 관리사용 한국식당을 따로 운영했다. 조선족직원은 여기에서 한국인관리자와 함께 식사했는데, 한족공인은 이것을 차별로 받아들였다.

40) 예를 들어, 생산라인의 한족반장과 조선족창고반장이 마찰을 빚어 생산에 차질을 내

암묵적으로 조선족 편을 들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자초지정을 조선족 직원에게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조선족 업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한국인과 조선족이 ‘동포’라는 점도 한몫 했다. 기업 내 계급적 지위보다는 “정치적 자원으로서 종족성(ethnicity)”(김광익 2005: 27)이 갈등을 발생시키고, ‘한국인-조선족-한족’이라는 ‘삼각관계’를 ‘한국인-조선족’ 쪽으로 기울게 만든 것이다.

노동력부족현상(民工荒)은 이런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대기업이 진출하자 공인도 대기업을 따라 이동했다. 지방정부마다 최저인건비를 상향조정했는데 공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주저 없이 자리를 옮겼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갈수록 한국제조업의 수출물량이 줄어들고 야근과 휴일근무가 없어지자 일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회사로 옮기는 일도 다반사였다. 야근·휴일수당이 없으면 임금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같은 고향 언니·동생·사촌이 한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한명이 공장을 옮기면 함께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인력도둑’도 성행했다. 예를 들어, 오더가 많은 의류업체의 성수기(12월~4월)에 다른 의류업체(또는 무역상)가 월급을 더 준다고 약속하며 숙력공(熟練工)을 빼돌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표수리가 안되면 한 달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부계약서도 작성해 두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인력도둑’이 벌금(한 달 임금)까지 채워줬기 때문이었다. 이러다보니 “설날 즈음에 적게는 30%, 많게는 80% 가까이 공인이 빠져나갔다.”

한국인관리자는 숙련공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한국제조업은 생산원가·제반비용이 상승하고 수출오더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최저인건비를 따라가는 것도 버거웠기 때문에

거나(H의류), 한족반장이 통역을 핑계 삼아 영똥하게 작업해 마음에 들지 않은 조선족직원을 골탕 먹이는 일도 허다했다(B주얼리). 때로는 퇴근 후에 한족공인들이 공장 밖에서 조선족직원을 협박하기도 했다(H의류).

대기업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다른 회사와 인건비 경쟁을 치를 여력이 부족했다. 대신 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달리했다. 의류회사의 조선족직원에 따르면, 생산라인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한족공인을 혼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통역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조선족직원을 나무라는 일이 많아졌다. 온정주의(paternalism)도 강조됐다. 근무환경이 좋지 않으면 바로 이직하는 한족공인이 늘어나면서 식당을 새로 짓거나, 음식 질을 높이고, 기숙사 시설을 정비했다. 공장 안에서 ‘야’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운동으로 한족공인에게 높은 점수를 따기도 했다(H공예품).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한족반장과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한족공인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선족직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정책변화와 제도강화로 새롭게 노동·환경·세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지인(外地人)인 조선족직원은 관시네트워크가 부족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출 길이 막히면서 중국내수시장을 뚫고 싶지만 조선족직원으로는 한계를 보였다. 한국인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관시네트워크는 고작해야 건물주나 촌 정부 관계자에 불과했기 때문에⁴¹⁾ 중국내수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조선족직원도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통역을 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며 한국과 무역을 진행하는 일은 문제가 없었지만 관시네트워크가 무엇보다 필요한 중국내수시장 공략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관리자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10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한족이었다면 지금보다 회사가 더 커졌고, 내수도 뚫었을 것”(H의류)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41)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한국인관리자가 어떤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해봤는데 대부분 동종업계 한국인관리자 외에는 친밀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조선족에 대해서는 ‘직원’으로서만 생각하고 있고, 한족은 촌 정부 관계자나 건물주를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로서만 인식했다. 담당공무원도 현지직원이 직접 상대했고(심지어 ‘관시용 선물(혹은 돈)’도 직원이 직접 전달했다), 하청업체 등과도 긴밀한 관계가 부족했다. 언어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아침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현장에서 생산관리를 하느라고 공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제조업의 운영시스템 때문인 것 같다.

‘B쥬얼리’는 4년 전까지만 해도 부서마다 조선족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번역과 무역을 겸한 2명만이 근무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조선족의 역할은 통역”이라고 못을 박았다.

원·부자재를 구매하면 판매회사가 일정액을 담당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후이커우(rebate, 回扣)’라고 하는데, “선물경제라는 전통적인 교환양식”(Yang 1994: 178)으로서 중국인은 이를 관행으로 여겼다. 구매나 출납·회계를 담당할 직원은 임금보다 더 많은 후이커우를 챙길 정도로 후이커우는 조선족직원의 또 다른 수입원이었다.⁴²⁾ 하지만 기업환경이 달라지면서 후이커우를 받는 일이 쉽지 않아졌다. 수출물량이 줄어들어 후이커우를 기대할 만큼 원·부자재 주문량이 많지 않았고, 인건비 절약과 신뢰 측면⁴³⁾에서 회계·출납 업무를 한족에게 맡기는 회사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한국인관리자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하청업체를 상대하면서 후이커우 대신 납품대금 인하를 요구했다. 또한 모든 구매와 출납 등을 한국인관리자가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묵인했던 후이커우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후이커우의 의미가 ‘관행’에서 개인이익을 위한 반기업적인 ‘불법’으로 바뀌었고, 조선족직원의 주머니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다.

재미있는 점은 조선족직원이 기업 내에서 역할이 축소되는 현상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 조선족직원(A부장)은 만약 자기의 수입이 감소하거나 역할이 줄어들다면 다른 한국기업을 찾거나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가면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부모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한족사무직원은 한국기업이 임금이 높고 배울 것이 많

42) 예를 들어, ‘H의류’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조선족직원은 원부자재 회사로부터 후이커우뿐 아니라, 회사의 수출입 컨테이너를 활용해 한국물건을 밀수해오는 등 개인적인 사업을 벌여 큰돈을 벌었다.

43) 한 조선족직원에 따르면, 한족에게 한국기업은 임금이 높고 근무조건도 좋아 오래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조선족보다 컸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후이커우를 조선족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고 했다.

으며 이직도 쉽지 않아 “죽기 살기로” 일했다. 한국인관리자는 “회장님”(H의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조선족직원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영어하고 일어만 할 수 있다면 절대 한국회사를 안 간다”는 조선족직원(C공예품)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제조업을 바라보는 조선족의 시선도 달라졌다. 때로는 한족공인과 힘을 합쳐 한국인관리자에게 통역을 다르게 해 은밀하게 저항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인과 조선족이 상호불신과 기피를 보이는 모습은 여러 연구자(주영하 2004; 이장원·이창휘·김성훈·윤문희 2008)가 분석한 것처럼 한국제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관리자와 조선족직원 사이에 “일상의 맥락에서 형성된 사회문화적 거리감(sociocultural distance)”(채수홍 2007: 31)이 멀어졌으며, 서로 정치적 자원으로써 활용했던 종족성이 약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조선족의 관계가 질서와 갈등을 유지하면서도 공생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악어새와 악어의 관계, 혹은 일종의 ‘애증관계’로 분석하기도 한다(주영하 2004: 256).

필자가 보기에 한국제조업의 사례만 놓고 보면 산업구조조정으로 이러한 애증관계마저 해체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다. 공생을 도모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조선족직원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그 이상은 아니다. 통역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생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는 한족직원과 영어권 해외기업을 특별한 공생관계로 보지는 않는 것처럼 한국인관리자와 조선족직원의 관계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사업운영에 필요한 중국말을 할 줄 아는 한국인관리자가 등장할수록⁴⁴⁾ 이런 현상은 두드러질 것이다. 특히 한국인·조선족의 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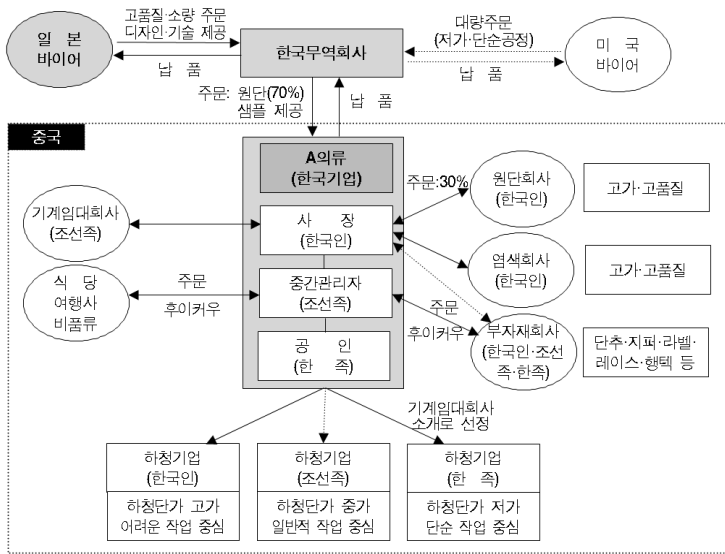
44)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지 8년 된 H의류 사장(한국인)은 중국말을 배워 지금은 한족공인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한족하청업체 또는 담당공무원을 만날 때도 통역 없이 직접 일을 처리했다. 특히 뒤(5장 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한족기업과 동업을 맺으면서 조선족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적·수평적 네트워크가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종족경제권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2) 한족기업의 부상과 종족경제권의 균열

한국기업을 따라 한국인과 조선족이 이주해오면서 청도는 한국인·조선족의 종족집단지주지역이 형성됐다. 이곳에서 한국인과 조선족은 정치적 자원으로서 ‘종족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구조와 자원을 제공받았다. 시간이 흐르자 종족 피고용인을 사업가로 성장시키는 종족집단지주지역의 학교 기능이 발휘됐다. 한국인관리자와 조선족직원은 한국제조업의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독자 기업을 창업하거나 하청업체를 차렸다. 그러면서 ‘한국인 고용주-한국인·조선족 피고용인’, ‘한국제조업-한국인·조선족 하청업체’라는 종족경제권의 수직적 관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와 협력, 다각화와 경쟁을 벌이는 수평적 관계도 구축했다. 한국인·조선족이 “하나의 웹(web)으로 연결돼 있는”(Werbner 2001) 종족경제권을 확립한 것이다.

<그림 1>은 ‘A의류’ 사례로, ‘해외 바이어와 연결된 한국의 무역회사-한국인(최고관리)·조선족(중간관리)·한족(공인)의 기본구조를 갖는 한국제조업-한국인·조선족 중심의 하청업체’라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 또한 원단·염색·부자재·기계임대회사뿐 아니라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쟁하면서 한편으로 협력하는 다른 의류회사도 대부분 한국인·조선족업체로, 종족경제권의 수평적 관계도 구축돼 있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제조업의 운영구조는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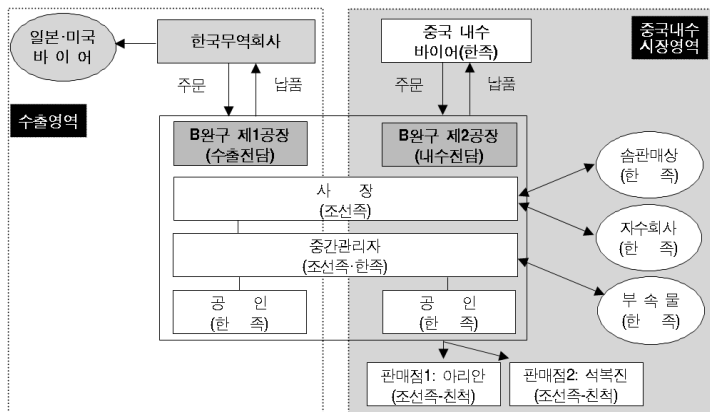
〈그림 1〉 A의류: 일본 주문을 한국무역회사를 통해 받아 제작한 뒤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

하지만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종족경제권의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조선족기업인 ‘B완구’(그림 2)는 수직적 관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회사는 한국무역회사를 통해 일본 수출물량을 주문받은 뒤 이를 생산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 〈그림 2〉의 ‘수출영역’에서 드러나듯이 이 회사는 종족경제권의 기본구조인 ‘한국인(바이어)－조선족(관리자)－한족(공인)’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뚜렷했다. 그러던 중 수출제품 일부를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했는데,⁴⁵⁾ 이를 보고 한족바이어가 연락하면서 내수물량이 생겨났다. 그러자 회사는 물량이 줄어든 수출에 목을 매기보다 내수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수용 공장을 건립하고 직영판매점까지 문을 열었다.

45) 임가공 회사 대부분은 수출한 뒤 남은 원단을 활용해 제작한 상품이나, 수출 후에 남은 소량의 제품을 ‘뒤’로 빼내 내수로 돌리곤 하는데, 기업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이렇게 빼낸 내수가 남은 장사라고 말했다.

〈그림 2〉의 오른쪽 면인 ‘중국내수시장영역’을 보면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이 하나도 없다. 바이어부터 원·부자재 판매상 등 모든 연관분야가 한족(일부 조선족)과 관련돼 있다. 중국내수시장은 전국적인 관시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한족이나 뿔을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중국내수시장 오더는 물량이 많지만 단가가 낮아 저가로 하청을 맡는 한족기업에게 하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직영판매점에 조선족 친척이 근무하는 것 외에 웬만해서는 조선족조차 관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조선족직원도 “만약 처음부터 (‘B완구’)가 중국내수전문 회사로 출발했다면 현재 조선족이 맡고 있는 중간관리자도 한족이 도맡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처럼 ‘B완구’ 사례는 한국인을 대신해 한족이 부상(浮上)하면서 ‘한족-조선족-한족’이라는 새로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는 한국제조업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조짐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동종 의류업체지만 일이 많을 때는 한국 공장끼리 재하청을 주면서 수평적 통합을 이뤄왔다. 하지만 수출물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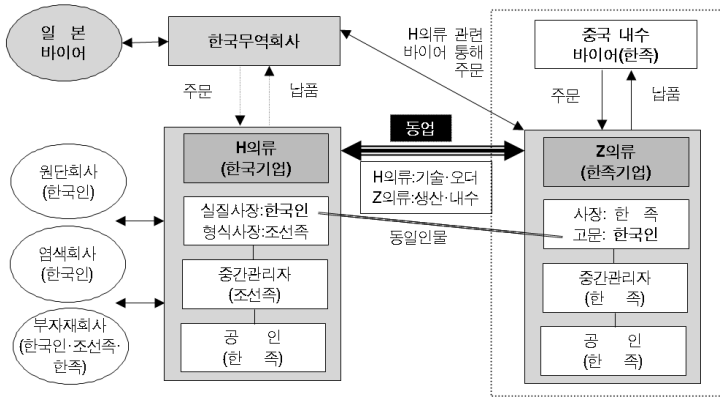
〈그림 2〉 B완구: 수출이 줄어들고 인터넷 통한 내수가 늘자, 제2공장을 건립해 내수 본격 추진

줄어들고, 산업구조조정으로 한국공장이 줄어들면서 서로 하청을 주는 일이 급격히 줄었다. 이 외중에 한족기업이 비어있는 한국제조업의 자리를 차고 나섰다. 또한 한국제조업도 수출길이 막히자 중국내수시장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조선족의 관시네트워크로 내수시장을 뚫기에는 버거웠기 때문에 한국제조업은 동업자로서 한족기업을 찾아 나섰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한국제조업과 조선족기업이 형성한 종속경제권의 수평적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H의류’(그림 3)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출오더가 여전히 많지만 경영방식을 달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무역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일본 오더를 기존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하되, 별도로 자본력이 풍부한 한족기업 ‘Z의류’(이 회사는 ‘H의류’의 하청업체였다)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손을 잡고 내수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H의류’ 사장이 ‘Z의류’의 고문형식⁴⁶⁾으로 해외주문과 기술을 담당하고, 한족기업은 내수시장 개척과 제품생산을 맡는 방식이었다. 또한 동업이 궤도에 오르면 기존공장은 아예 조선족직원으로 명의를 바꾸기로 했다. 산업구조조정의 전통제조업에 대한 배타정책으로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기업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외자기업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이장원 외 2008: 193)이 갈수록 증가하고, 전통제조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사례에서 기존방식과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제조업이 한족기업과 손을 잡은 이유가 ‘하청’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업’이라는 점이다. 이전에는 한국제조업이 기술뿐 아니라 자본도 댔지만 이 사례에서는 한족기업이 돈을 낸다. 이러한 구조에서 조선족은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제조업-조선족기업’, 또는 ‘한국제조업-한국제조업’ 형식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던 종속경제권의 수평적 관계

46) 현재 ‘H의류’ 대표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Z의류’는 고문으로 등재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한족시장과 계약서(한족공장과 공인 등을 임대하는 형식)를 체결하고 ‘Z의류’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3〉 H의류: 기존 공장을 조선족직원 명의로 변경하고, Z의류(한족)와 동업 추진

가 ‘한국제조업-한족기업’의 새로운 형식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A완구’와 ‘H의류’가 모든 기업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많은 한국제조업이 ‘한국인-조선족-한족’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새롭게 창업하는 한국인·조선족제조업도 종족경제권을 활용하며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두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도 않다. 필자는 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종족경제권의 균열은 갈수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족기업이 이전과는 달라진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제조업-조선족기업-한족기업’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6. 한국제조업과 종족경제권의 대응

1) 사대주의 콤플렉스: 우월감(superiority)에서 경외감(awe)로

진출 초기의 대대적인 환대가 홀대로 바뀌고, 사회적 기반인 종족경

제권마저 균열조짐을 보이자 한국제조업은 다양한 생존전략을 구상해야만 했다. 중국을 벗어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였다. 베트남은 이런 분위기를 읽고 청도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지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출세금 환급을 100% 보장해주고, 임금은 1달에 400위안 수준이며, 토지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⁴⁷⁾ 실제로 한국제조업은 이전을 타진해봤다. 하지만 중국은 효율성, 자원,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최고의 투자처이자 시장이었다. 또한 “베트남도 조만간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될 뿐 아니라, 중국에서 댄이놓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기가 어려웠다”는 ‘B주얼리’처럼, 많은 기업이 중국에 남기로 결정했다.

중국에 남기로 결정한 이들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여전히 기회 땅”이라는 했지만, 기회를 살리려면 진출 초기와는 다른 모습이 필요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집단의 의심과 반발을 피하기 위해 모습을 낮추고 그 사회에 대한 도전세력이라기보다는 적응하는 집단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김광익 2005: 71). 한국기업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제조업은 IMF 금융위기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쫓겨나다시피 한국에서 벗어났지만, 중국에서는 수백 명의 공인이 일을 배우겠다고 몰려들었다. 역사 속에서 늘 문명을 전달받기만 했던 한국이 도리어 중국에 선진기술을 전파해준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사대주의라는 집단적 기억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근대화의 후견인으로 평가하는 일본의 우월감 콤플렉스(superiority complex)”(Lee 1963: 323)처럼, 한국기업인은 낙후된 중국경제의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우월감’을 형성했다. 또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중국인을 무시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47) 新財副 2008. 5. 15 “外企 ‘搬家’遠喜近憂” 참조.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중국놈(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할 만하니까 하죠. ... 애네(중국사람)보다 고차원적인 문화에서 살았던 놈이라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있어서 애네를 깔볼 수도 있죠. 아니면 그런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가 애네를 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어 정말이네’ 하면서 확인이 돼서 더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마디로 (중국사람은) ‘이런 예의도 모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죠.

중국인을 무시하는 내용을 보면 다분히 주관적이고 서구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식 매너개념으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질타한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자주 씻지 않고 생활환경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서구식 위생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의 집단기억 때문인 것 같다. 경제적 우월감이 생겼지만 이들의 기억 속에 중국은 늘 “빅브러더(big brother)”(Lee 1963: 323)였을 것이다. 결국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끄집어내는 것밖에 없었을 것 같다. 현대적 일상에 오리엔탈리즘을 투영해 한국인이 무시할 수 있는 중국인을 발명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인의 이러한 우월감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은 중국기업에게 주요기술을 제공하고, 중국기업은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로 부상했다(Lei 2007). 청도에 진출한 한국제조업도 중국대기업에게 고품질의 핵심부품을 공급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데 보조역할을 했으며, 중국제조업에게는 혁신·기술이전·품질관리 등을 강화시키며 기술력을 높여줬다(Kim 2005). 이로 인해 한국제조업의 기술적 우위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돈 많은 중국인이 많아지자 한국인의 경제적 풍요로움도 옛말이 되어갔다. 중국 정부가 서구식 매너와 청결을 강조하면서⁴⁸⁾

48)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청결한 위생, 교통질서와 분리수거, 남을 배려하는 정신, 서구식 예의범절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일상생활도 점차 달라져갔다. 한국기업인이 중국인을 무시할 근거가 약해진 것이다.

해외자본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을 높이는데도 일조했다. “피해자/승리자 콤플렉스(victim/victor complex)를 토대로 한국인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정에 분노하듯이(Soh 2003)”, 한국기업인은 청도 발전의 후견자이자 산업구조조정의 일방적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인식을 토대로 달라진 기업환경에 분노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 분노를 표출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뒤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⁴⁹⁾ “앞으로는 한국인이 중국인 발마사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경제발전에 무서움을 느끼는 이들도 많았다.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띤 한인사회가 중국사회로부터 의심과 배척의 시선을 받으며 공공의 적으로서 도덕적인 공격⁵⁰⁾까지 받게 되자, 한국기업인은 중국인과의 파트너 관계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H의류’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서 중국을 우습게보지 말고, 싸우지도 말아야 하며, 서로 경제협력이 잘 이뤄져야만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상공인회 관계자는 한국기업을 “중국에 시집은 며느리”로 규정하며 “시댁인 중국을 공경해야 모두가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를 중국식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한국제조업의 대응전략으로 바라본다. 달라진 기업환경에 적응하

위한 다양한 활동도 벌여왔다.

49) 예를 들어, 2008년 7월에 청도시 정부가 예보 없이 강압적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일이 많았다. 이로 인해 ‘B주얼라’는 수출 납기일을 못 맞추기도 했고, 전기가 들어오는 야간에 근무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더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 항의를 하지 않았는데, 관계자는 “뒤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0) 〈中華新聞網〉의 사실(2007. 6. 14) “政府应当限制在华居住韩国人规模”은 이러한 중국사회의 반응을 잘 보여준다. “...한국인은 천성적으로 오만해 스스로 중국인보다 높아 중국국민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인과 같이 살지 않고 한국인끼리 모여 살면서 한국요리를 먹고 한국학교를 다니며 심지어 한국성까지 형성했다...이러면서 중국인의 거주환경과 생활자원을 차지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규모를 억제해야 한다. 한국인이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를 제압할 것이다...”

기 위해 중국에 대한 인식을 ‘우월감’에서, ‘사대주의 콤플렉스’의 재현으로서 두려움과 이러한 두려움에서 나온 공경(恭敬)이 공존하는 ‘경외감’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2) 현지화 전략과 한족중심사회로 진입하기

한국제조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운영비용을 줄이는 경영합리화에 힘을 쏟았다. 한국제조업은 대부분 수출위주기업이었기 때문에 수출오더를 하나 더 잡아오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그래서 사무실 업무를 조선족직원에게 일임하고 한국관리자는 생산관리에 집중하거나 바이어 관리에 매진했다. 하지만 수출물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한국인관리자는 지출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B주얼리’는 미국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며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공인을 자연스럽게 감소시켰다. 한국인관리자 식당도 문을 닫고 공인식당을 이용했다. 일부 기업은 한국인관리자의 주재비도 삭감했다.⁵¹⁾ 수출단가가 낮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한국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는 기업도 생겨났다. 미국 시장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한국 흡소핑 오더를 받거나, 새로운 한국 바이어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⁵²⁾ 하지만 한국 오더는 단가가 낮아 생산비용을 줄여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작업이 까다로운 것은 한국업체에게 하청을 준다고 하더라도, 쉬운 작업은 하청단가가 낮은 한족기업을 찾게 됐다.

광물회수업과 보석가공업을 병행하는 ‘H공예품’은 보다 강도 높은

51) “중소기업도 (주재원이) 집을 살 때 보조금을 줬는데, 이제는 점점 낮아지다가 아예 없다고 볼 정도예요. 한마디로 기본 월급만 받는 셈이죠. 또 4대 보험을 한국에 가입해줬는데 이제는 다 없애버린다고 하잖아요. 기업이 힘들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없애버리는 거죠.”(전자회사 주재원 출신의 한국음식점 사장)

52) ‘B주얼리’ · ‘H공예품’ 사례로, 미국 시장 바이어를 찾았지만 딱히 나타나지 않자 공인 인건비라도 지급하기 위해 소량의 주문이더라도 한국바이어를 찾아 작업을 계속했다. 한편, 한국흡소핑 오더는 단가도 낮았지만 워낙 작업 일정이 촉박해 이전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꺼려했던 일이었다.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회사의 손익결산표⁵³⁾를 보면, 2005년 영업이익은 1,500,082위안으로 설비투자과 부채를 상환하고도 340,082위안이라는 순이익이 남았지만, 2006년에는 영업이익에 3,228위안에 불과해 단 한 푼도 부채를 갚지 못했다. 일거리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생산원가만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면, 영업수입은 10% 증가에 그친 반면에 인건비는 64%, 제조비용은 132%나 상승했다. 11·5계획을 전후로 인상된 인건비와 원·부자재의 가격상승이 주원인이었다. 결국 ‘H공예품’은 2007년 3월에 주력업종인 보석가공업을 접었다. 한국인 주재원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생산비용절감은 강도 높은 현지화전략으로 이어졌다. 중국 현지에서 구매하는 의류원단의 양을 조금씩 늘리는 등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전량으로 들여왔던 사업구조를 현지화하기 시작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족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일도 늘어났다. 어떤 기업인의 말처럼 소규모의 한족기업은 “불량은 많지만 일을 주면 죽기 살기로 했다.” 그래서 “비수기에 쉬운 제품을 줘서 훈련을 시킨 뒤 성수기에 써먹는다” 회사도 증가했다. 비교적 저렴한 중국인 거주지로 사무실과 집을 옮기면서 한족과 어울려 사는 한국인도 갈수록 많아졌다.⁵⁴⁾ 한국인관리자를 한국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대학을 졸업한 현지 한국인을 채용하거나, 아예 한국어를 배운 한족본지인(漢族本地人)을 채용하는 회사도 늘어났다. 또한 한국제조업은 불우이웃돕기에 나서고 한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현지화는 사회문화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제조업의 대응전략으로서, 한족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친밀한 관계

53) 여기에서 참고한 자료는 일반적인 한국기업처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H공예품’ 회계담당자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실질적인 손익결산서(2004. 1~2008. 8)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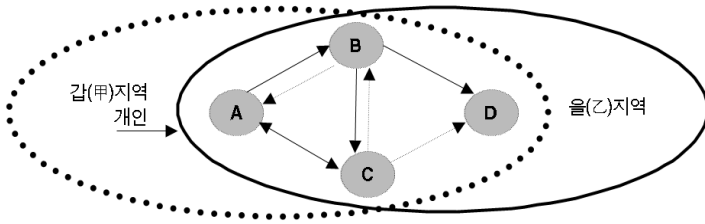
54) 부동산의 한 업자는 2007년부터 한족중심의 거주지 중에서 한국인이 주로 거주하던 아파트보다 시설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훨씬 싼 집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사했다고 말했다.

를 통해 한족중심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한족중심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한국제조업에게 중요해진 것은 관시 네트워크였다. 예를 들어, 내수시장이 커지자 한족업체가 작업이 까다로운 한국제조업의 하청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리면서 한족업체와 관시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제조업은 저가의 하청을 주는 것도 힘들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H의류(Z의류와 동업)처럼 한족업체와 동업관계를 맺는 것도 관시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 다른 사례로, 'H공예품'은 환경당국에서 수시로 감사를 나와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하자 조선족직원을 통해 환경당국과 관시가 형성돼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이 사람은 관시를 위한 '선물'로서 돈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벌금보다 뒷돈이 더 들어갈 판이었다. 그래서 한국인관리자가 직접 환경당국 공무원을 찾아가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관리자는 "선물(gifts), 호의(favors), 연회(banquets)"(Yang 1994)를 통해 한족공무원과 관시를 형성했고, 이후 부터는 문제해결이 훨씬 쉬워졌다.

종족경계권이 균열의 조짐을 보이면서 한족중심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한국제조업으로서는 한족과의 관시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오(毛)시대에 정치적 배제와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관시를 형성한 것처럼, 한국제조업에게 관시형성은 기업운영과 직결된다. "중국 시민사회(民間)는 여전히 선물경제와 호혜적인 관계의 개인적 관시네트워크로 구성"(Yang 1994: 295)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단철수 이후 다른 한국제조업을 믿지 못하고, 한국정부조차 자기들을 배제했다고 생각하는 한국제조업으로서는 조선족과의 종족성을 대신해 정치적 자원으로서 한족과의 관시형성에 이전보다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진출 초기에 형성한 협소한 범위의 관시네트워크를 뛰어넘을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림 4〉는 중국사회의 개인지위와 권위가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4〉 개인지위(個人地位)와 권위(權威)의 변위도식(位移圖式)(翟學偉 2004: 301 참조)

것으로, 화살표는 개인끼리 관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B는 ‘을’ 지역에서 C와 D에 대해 일상적으로 권위를 지배한다. 이에 반해 A는 갑 지역에서 B를 지배하고 C와 관시를 가지고 있다. ‘갑’과 ‘을’이 결합하게 되면 ‘을’에서 B의 지배를 받던 C는 A와의 관사에서 생기는 일상권위(日常權威)를 통해 B와 D를 지배할 수 있으며, B가 행하는 기타권위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제조업은 중국사회에서 주변적인 종속경제권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한족중심사회와 결합하면 일상권위의 부족으로 주변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제조업이 C라고 하면, 이들이 바라는 것은 권위자(權威者)인 A와의 관시형성일 것이다. 권위자의 일상권위를 빌려 경제적·사회문화적 배제를 극복하고 한족중심사회에서 일상권위를 점차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인 셈이다. 하지만 관시형성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위자와 관시를 맺지 못하면 한국제조업은 사회적 규범의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翟學偉 2004: 304).

7. 맺음말

이 연구는 청도의 한국제조업이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으로 배제되는 현상을 통해 민족국가가 해외자본을 어떻게 ‘통치하며’, 해외자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해외자본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봤다. 특히 중국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가 해외기업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상정하면서 지역사회와 해외기업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간과했다는 문제의식에 출발해, 한국제조업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현상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참여관찰함으로써, 중국식 산업구조조정이 해외기업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그 역동성을 탐구했다.

진출 초기에 한국제조업이 중국사회로부터 받은 대대적인 환대는 어느 순간 ‘불량기업’, ‘석양기업’으로 불리면서 홀대로 바뀌었고, 달라진 사회적 지위를 감내해야 했다. 무단철수 이후에는 집단과 범주로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제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 한국 등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세 제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정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 이미 밀려난 산업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적응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한국에서 밀리다시피 해 중국에 진출했거나, 집을 팔아 공장을 시작한 한국제조업으로서는 “한국이라는 만원버스에서 한번 내려버렸는데 다시 올라탈 틈이 있겠어?”라는 어느 기업인의 말처럼 “돌아갈 곳이 없었다.” 재단사에서 의류업체 사장으로, 보따리장사꾼에서 무역회사 대표로 신분상승한 문화적 경험도 그렇거니와, 이들에게 중국은 마지막 보루이자 그래도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에 중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도나거나 무단철수한 기업을 스스로 낙인찍으며 차별화하고,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도 바꾸기 시작했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과감한 기업 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조선족직원은 정치적 자원으로서는 종족성을 활용하면서 한국기업인의 ‘참모’로, 한족공인에게는 ‘중간관리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달라진 기업환경과 한국제조업의 현지화 전략으로 조선족이 가졌던 정치적 자원으로서는 종족성은 약화됐다. 이로 인해 기업 내 삼각관계는 ‘한국인-

조선족'에서 '한국인-한족'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한국인관리자와 조선족직원의 사회문화적 거리감은 갈수록 멀어졌다. 한국제조업을 매개로 형성한 종족경제권도 균열조짐을 보였다. 한국제조업뿐 아니라 조선족기업도 세계경제불황과 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중국내수시장에 눈을 돌렸고, 모두가 한족기업과의 파트너 관계를 원했다. 한족기업은 한국제조업의 기술력을 토대로 성장했고, 한족만의 관시네트워크를 활용하며 급부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제조업-조선족기업-한족기업'의 수직적 관계가 '한족기업-한국제조업' 또는 '한족기업-조선족기업'의 수평적 관계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한국제조업이나 조선족기업이 이렇듯 한족기업과 동업을 맺는 것은 종족경제권에서 벗어나 한족 중심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통제조업을 배제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오히려 한국제조업을 중국사회에 흡수·융합하는 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한족중심사회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한국제조업은 한족과의 관시형성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밖으로 확장하는 관시네트워크는 귀천(貴賤)·친소(親疎)·장유(長幼)·원근(遠近)에 따라 서열이 매겨진다(費孝通 1984: 31). 차등적인 관시네트워크는 또한 “선물교환의 불균형”(Yan 1996)도 발생한다. 한족을 정복했던 이민족이 결국 소수민족으로서 중화민족에 흡수·융합된 것처럼, 한국제조업이 한족사회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하더라도 관시구조의 차등과 불평등으로 인해 한국제조업은 주변적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가 중국식 산업구조조정을 중화사상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포용과 배타의 이중적 구조를 유연하게 활용해 이국적인 것을 중국사회로 흡수·융합하는 중화사상(이춘식 2002: 26)이 중국식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해외자본에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논문접수일(2008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2008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2008년 12월 3일)

참고문헌

강준영 · 전병곤

2008 “중국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분석 — 제2기 후진타오 집권 체제의 구성과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43: 413-425.

김광억

2005 “중국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중족과 민족』, 아카넷. pp. 15-84.

김영진

1995 “개혁기의 중국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간 차별적인 재정관계의 전개: 상해시와 광둥성을 예로”, 『한국정치학회보』 29(3): 607-629.

김윤태

200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정부 및 사회와의 관계”, 『중소연구』 97: 91-121.

남수중

2007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 변화와 정책적 함의”, 『현대중국연구』 8(2): 137-172.

박장재

2008 “중국 기업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본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중국학연구』 43: 315-340.

서창배

2006 “중국의 외국인 자본 규제 강화와 한국기업의 對中투자 최근 트렌드에 대한 소고”, 『한중사회과학연구』 8: 1-16.

오경숙

2007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국 투자진출 전략”, 『한국동북아논총』 43: 181-196.

이성규

1992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철학』 37: 31-67.

이수행

2007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변화: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8(2): 215-249.

이장원 · 이창휘 · 김성훈 · 윤문희

2008 『중국 노사관계 변화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실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승

2006 “현대 중국사상계에 나타난 ‘중국학열’과 신중화사상”, 『중국학보』 54: 499-522.

이춘식

2002 『중화사상의 이해』 서울: 신서원.

주영하

2004 “소수자로서의 재중 조선족”,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최협외, 서울: 한올아카데미. pp. 239-260.

채수홍

2007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비교문화연구』 13(2): 5-39.

홍정륜 · 구기보

2006 “중국 경제성장정책의 변화 연구: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중국연구』 38: 458-481.

황재한

2006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동북아경제연구』 18(3): 1-26.

KOTRA

2007 『중국 투자핵심가이드』, 서울: KOTRA.

翟學偉

2004 『中國社會中的日常權威:關係與權力的歷史社會學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李哲承

2006 “关于如今中国思想出现的‘和諧社會’论与传统哲學的‘和’思想的深討”，第26次 中國學國際學術大會，2006年8月18-19日.

费孝通

1984 『郷土中國』(이경규 옮김, 1995, 『중국 사회의 기본 구조』, 서울: 일조각).

Chen Chung · Chang Lawrence · Zhang Yimin

1995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s post-1978 economic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23(4): 691-703.

Dhar, Biswajit · Roy, Saikat Sinha

1996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omestic savings-investment behaviour,”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996: 2547-2551.

Dunning, J.H.

1980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1): 9-31.

Fanon, Frantz

1995 *Peau Noire Masques Blancs* (이석호 옮김, 1998,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Jin Yueqin

2008 “The FDI of China-Korea economic relationship China’s transition economy,” 『經濟研究』 29(1): 21-32.

Johanson, J. · Vahinem J.E.

1977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market commit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8: 23-32.

Kamath, Shyan J.

1990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entrally planned developing economy: the Chinese cas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pp. 107-130.

Kim Junyoub

2005 “The Impact of Clustering of DFI on Urban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The case of Qingdao Development,” Zones University College London.

Kobrin, Stephen J.

1980 “Foreign enterprise and forced divestment in LD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4(1): 65-86.

Lee Chong-Sik

1963 “Japanese-Korean Relations in Perspective,” *Pacific Affairs* 35(4): 315-326.

Lei, David

2007 “Outsourcing and China’s Rising Economic Power,” *Orbis* 51(1): 21-39.

Lin, Jan

1997 “Gateways in the Flow of Capital and Culture: Hong Kong and New York as World Cities,” *City & Society* 9: 217-240.

Nash, June C.

1981 “Ethnographic Aspects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The Anthropology of Politics: A Reader in Ethnography, Theory, and Critique*. Blackwell Publishers. pp. 234-254.

1989 *From Tank Town to High Tech: The Clash of Community · Industrial Cycles*. Stat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Ong, Aihwa

1998 “Flexible Citizenship among Chinese Cosmopolitans,” *The Anthropology of Politics: A Reader in Ethnography, Theory, and Critique*. Blackwell Publishers. pp. 338-355.

Pereira, A.

2004 “The Suzhou industrial park experiment: the case of China-Singapore governmental collabo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3: 173-193.

Rosaldo, Renato

1989 *Culture and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ston: Beacon Press (권숙인 옮김, 2000, 『문화와 진리: 사회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아카넷).

Saha, Biswatosh

2000 “Emerging MNCs from China: a case stud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5: 4234-4245.

Sethi, D. · Guisinger, SE. · Phelan, SE. · Berg, DM.

2003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4: 315-326.

Shen, Jianfa · Wong, Kwan-yiu · Chu, Kim-yee · Feng, Zhiqiang.

2000 “The spatial dynamics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Pearl River Delta, south China,” *The Geographical Journal* 166(4): 312-322.

Soh, ChungHee Sarah

2003 “Politics of the victim/victor complex: Interpreting South Korea’s National Furor over Japanese history textbooks,” *American Asian Review* 21(4): 145-178.

Wallerstein, Immanuel

1979 “Dependence in an interdependent world: the limited possibilities of transformation with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The Capitalist World-Economy* (정진영 옮김, 1985, 『세계체계론: 신종속이론』 나남).

Wang Jenn-Hwan · Lee Chuan-Kai

2007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local institution building: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technology industry in Suzhou, China,” *Environment and Planning* 39: 1873-1888.

Weisskopf, Thomas E.

- 1972 “The impacts of foreign capital inflow on domestic saving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 25-38.

Werbner, Pnina

- 2001 “Metaphors of Spatiality and Networks in the Plural City: A Critique of the Ethnic Enclave Economy Debate,” *Sociology* 35(3): 671-693.

Yan Yunxiang

- 1996 *The Flow of Gifts: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s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Yang Mayfair Mei-hui

- 1994 *Gifts, Favors, and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Key concepts〉: Chinese industrial restructuring, international flows of capital,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Chinese Industrial Restructuring:

Change and Response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n
Qingdao Excluded from Competition

Jang, Segil*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analyzing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Chinese Industrial restructuring’ through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excluded from economy and socioculture in Qingdao. This research is based on fieldwork that examined from March to October in 2008. Chinese Industrial Restructuring excluded from foreign firms of traditional manufacturing, connecting with modes of exchange: the state distributive economy, the gift economy, a resurgent commodity economy, Chinese Thought and modern Chinese complex cultural formation. Korean manufacturing was called ‘delinquent industries’ and it became a target of surveillance and regulation as organizations and categories. In this circumstance, they started to think differently about China and Chinese, on the other hand, they strategically tried localizing strengthening law as different policy. Differed industrial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circumstance and localizing strategy of Korean manufacturing weakened ethnicity as the political resource that Chinese of Korean descent had. Accordingly a three-cornered relation among industries began to toward from ‘Koreans and Chinese of Korean descent’ to ‘Koreans and Chinese’ and a Korean administrator and Chinese of Korean descent made sociocultural distance. Ethnic economy formed by the medium of Korean manufacturing showed cracks and gradually Korean manufacturing and Chinese industry of Korean descent was accepted as important Chinese central society of guanxi networks in China. However, I prospect that Korean manufacturing accepted into Chinese central society will have unfair discrimination in that guanxi networks happen ‘the asymmetry in gifts exchange.’

